



소리주보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사진 : 이영이 카타리나(좌동성당 ·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입 당 송 시편 43(42),1-2 참조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웁니다.

3.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4.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1 독 서 이사야서 43,16-21

제 2 독 서 필리피서 3,8-14

화 답 송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 3 참조)

복 음 환 호 송 요엘 2,12-1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1.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2.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복 음 요한 8,1-11

영 성 체 송 요한 8,10-11 참조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4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보건 의료 종사자들)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픈 이들과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자비의 하느님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비의 하느님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느냐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멍이 들었네.” 오은주의 ‘돌팔매’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전히 돌을 던지는 사람이 많아가 봅니다.

사실 당시 모세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레위 20,10; 신명 22,22-24 참조)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땅에 무엇인가 쓰시다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 8,7c) 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요한 8,11c)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나 돌을 맞을 사람 모두를 다 안아주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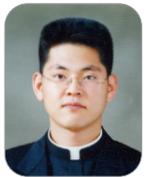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스승에게 사람을 보내어 꼭 참석 하셔서 그의 잘못을 따져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자신을 데리러 온 제자에게 금이 간 항아리를 준비시키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뒤 머리에 직접 이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모습은 항아리에서 줄줄 새어 나온 물 때문에 몸이 흠뻑 젖어 그 행색이 몹시 초라했습니다.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항아리를 내려놓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들이 내 뒤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들을 보지 못한 채, 오늘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심판하러 온 것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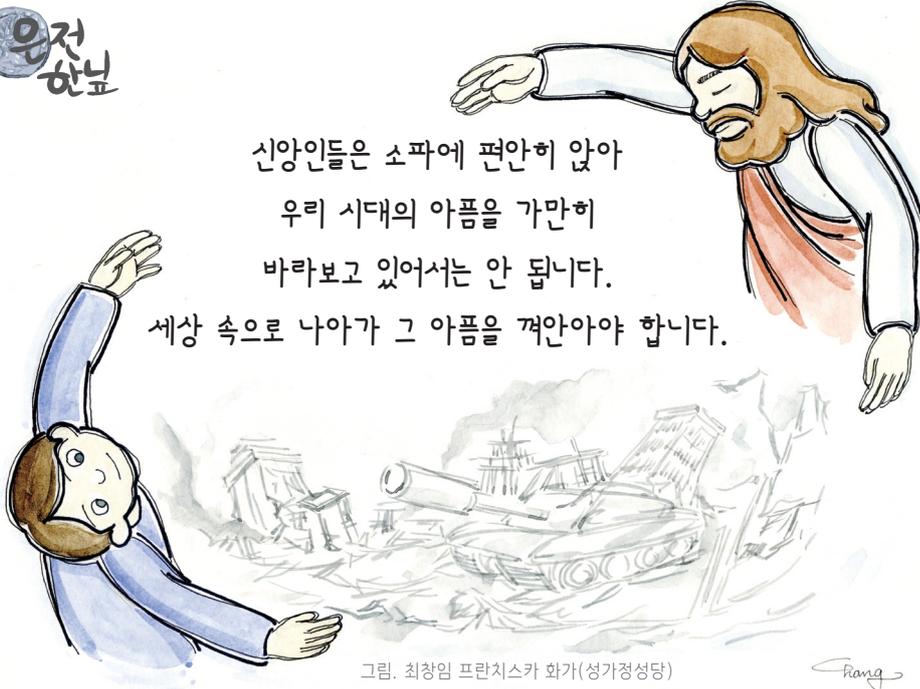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의 사순 시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신을 돌아켜보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의탁하는 복된 사순 시기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 대 하

사도요한 신부
두왕성베드로성당 주임



은전
한눈



신앙인들은 소파에 편안히 앉아
우리 시대의 아픔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아픔을 껴안아야 합니다.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101.1 MHz 울산 FM 94.3 MHz 녹산 FM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제) 16:50

4.4(월)~5(화)
김대하 신부(두왕성베드로성당 주임)
4.6(수)~9(토)
신동근 신부(성지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월~금 11:00~12:00
진행 : 김다정 데레사
4.6(수) <하늘타리>
출연 : 울산대리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4.10(일) 21:00~22:00
진행 : 김유진 세실리아
출연 : 서영일 더블 베이스리스트

대혼돈의 대선이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 또는 상대편 후보에 대한 신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떨어지는 대선이었습니다. 나의 선택을 검증하는데 언론은 오히려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선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선택하기가 어려운 혼돈의 시대입니다.

대혼돈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로 시민들은 판단에 혼란을 느끼게 되고, 결국 확정편향(確證偏向)의 오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일부 신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생각이 다른 형제자매와 선을 긋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시민들에게 공동선보다는 이해관계를 부추기고, 지지층을 결속함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언론과 손을 잡고 가짜뉴스를 생산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교회 가르침을 기준으로 믿고 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복음에 근거한 교회 가르침이 가장 확실한 '팩트'이며 '진실'이겠지요. 세상을 교회 가르침에 따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이상 가짜뉴스에 속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분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소통'이 답입니다. 저는 주교회의의 사회홍보위원회

위원장 옥현진(시몬) 주교님께서 가톨릭신문과의 대담(2022년 3월 27일자)에서 하신 말씀으로 같음하고 싶습니다.

“교회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토론하는 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이야기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틀렸다고 못 박아버리면 더 이상 대화의 여지는 없어지니까, 열어두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느님 백성으로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접점을 만들어 나가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우 세 민** 윤일 요한
가톨릭신문 기자



IV. 창조와 조화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전하는 메시지

- 84.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내세우면서 모든 피조물이 각기 기능이 있고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87.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송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 88. 브라질 주교들은 자연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현존의 자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십니다.

『찬미받으소서』 84항~88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찬미받으소서』 84항~88항 영상 보기

낭독 : 지속적인성체조배회장 김말수 소피아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기





살아갈 이유

30년 전, 레오(66세, 가명) 씨는 고향 청도를 떠나 부산으로 왔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한 부모님께 보탬이 되고자 신발공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릴 수 있어 기뻐지만, 자리를 잡아갈 무렵 야속하게도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실직 후 깊은 절망에 빠진 레오 씨를 안타깝게 여긴 친구가 기분전환 겸 캄보디아 여행을 제안했고, 그곳에서 아내 로사(41세, 가명) 씨를 만났습니다. 몇 번의 왕래 후 캄보디아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어 딸 안나(15세, 가명)와 아들 비오(13세, 가명)를 낳아 기르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가족은 살아갈 이유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레오 씨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마침내 보일러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8년간 환풍구도 없는 지하에서의 근무로 인해 건강했던 그는 어느 날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힘들어

도 참았습니다. 3년을 참아오다 폐의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간 레오 씨는 점점 폐가 굳어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평생 약을 복용해야만 합니다.

숨 쉴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레오 씨를 대신하여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던 아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일 자리를 구했지만 적은 소득으로 월세와 생계비, 의료비를 감당하면서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고될 위기를 겪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본당 교우가 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11평 남짓한 집, 아이들의 좁은 방에는 레오 씨가 직접 만든 철제 2층 침대가 있습니다. 아빠로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학원에도 보내고 싶지만, 그마저도 형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뿐 아니라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 레오 씨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최근 들어 폐에 작은 종양이 떠

니는 고립성 폐결절이라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레오 씨의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보다 앞으로의 정밀검사비와 수술비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까 걱정입니다.

레오 씨에게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투병 생활로 힘겹지만, 가족의 지극한 사랑과 본당의 꾸준한 관심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진 레오 씨가 건강을 되찾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사목국(051-516-0815)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아래의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봅시다.

* 1년 간 (2021.11.28.~2022.11.20.) 작성 후 모아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 8,7)

[나만의 성구]



2022년 아치에스 개최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이시여, 저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 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이 손을 모아 봉헌문을 합송하고 있다.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3월 25일) 전후로 실시되는 아치에스(Acies) 행사는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이 한 해 동안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악의 유혹에서 이겨낼 힘과 축복을 청하는 레지오 마리에의 중요한 연례행사 중 하나이다.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부산 분원 축복미사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부산 분원이 최근 신축 공사를 마치고, 지난 3월 26일(토) 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축복미사를 거행하였다. 손삼석 주교는 이날 강론 중에 “수녀님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아름답게 성장하고, 기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찾고 서로 나누는 은총의 통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부산 분원이 최근 신축 공사를 마치고, 지난 3월 26일(토) 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축복미사를 거행하였다. 손삼석 주교는 이날 강론 중에 “수녀님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아름답게 성장하고, 기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찾고 서로 나누는 은총의 통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영장대순교성지, 새 성모상 축복식 3월 27일(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

주님의 사랑으로만

신동헌 다윗 글/곡

올해 여러분의 사순 여정은 어떠하지요? 저는 재를 받으며 다짐한 수많은 극기와 희생, 보속들을 현실의 장벽과 나약함 앞에 하나둘 포기하게 되고, 실망 가운데 이내 제 자신을 탓하는 원망이 마음에 자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을 통해 제 결심들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극기와 희생은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의 찬양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삶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의 가치와 논리를 거슬러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분을 따랐던 이들이 살아낸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희망하도록 노래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필리 3,8-14 참조)라고 고백하신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은총의 삶을 이 찬양을 통하여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훈 사도요한 (금정성당)

성가 듣기



거제동, 태종대성당 연중 특강 마련

올해 사순 시기를 맞아 많은 본당에서 사순 특강을 진행하는 가운데 연중 특강을 진행하는 본당이 있어 눈길을 끈다.

태종대성당(주임 : 신문갑 신부,



회장 : 김정준 가브리엘)은 열철호 신부를 초청해, 3월부터 12월까지 성경 특강을 진행한다. 거제동성당(주임 : 김종남 신부, 회장 : 황선제 시몬)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첫 주 제외)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활용하여 신자들이 교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 구

예비신학생 월모임

중1, 중2, 중3 : 4.10(일) ZOOM을 통한 비대면 수업
고2 : 4.10(일) 10:30 교구청 2층 성소국
문의 : 629-8760(성소국)

교구 혼인강좌

· 일요일 15:00~18:50 (매월 1~2회)
· 부산가정성당, 울산대리구청
대상 : ① 결혼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
② 교회혼인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
접수 : 100% 온라인 (catholic-marry.or.kr)
비고 : 회당 선착순 50커플, 당일접수 불가
문의 : 441-3501(가정사목국)

기관·제 단체·위원회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양산 : 4.11(월) 10:00 남양산성당
울산 : 4.12(화) 10:00 아음성당
부산 : 4.14(목) 10:30 우동성당
문의 : 600-8800

『부산가톨릭문학』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

- 모집부문 및 분량 (200자 원고지 기준)
 - 시, 시조, 동시(5편) 소설(70매 내외 1편)
 - 수필(15매 내외 2편) 동화(30매 내외 2편)
 - 희곡(80매 내외 1편) 평론(80매 내외 1편)
- 심사방법
 - 심사위원은 문단의 권위 있는 작가로 함
 - 당선작은 본지에 발표하고 신인상 수여
- 접 수 10월 10일까지, 메일 접수
- 보낼 곳 sotoajimae@daum.net
- 참고사항
 - 표지에 응모 부문, 제목, 이름(반드시 실명), 한글 파일에 작품 및 간단한 약력, 주소, 전화번호 기입할 것.
 - 응모원고에 대해서는 반환을 책임지지 않음.
 - 본지 출신의 작가는 발표기회와 본회 회원자격 부여.

▶ 상 금 ◀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문 의 : 010-6627-1070(윤미순 주간), 010-2582-2969(정명지 편집장)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967.4.6.
김기봉(필립보) 신부님

사순 제5주일 젊은이 주보

<Youth Week>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월 21일~3월 27일]

소계 : 1,170,000원

정영숙 1,000,000 민겸손 100,000 김복순 20,000 전지인 10,000 안혜경 20,000 김지현 20,000

※ 지난 모금 내역 및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금 누계 : 941,892,334원

사용 누계 : 701,667,700원

잔액 : 240,224,634원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십시오.

<입금 계좌>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주) 씨피여행사 www.cptravel.co.kr ☐ 국제선항공권 : 010-3832-4106 ☐ 물디브, 하와이 : 010-3837-6434 ☐ 사이판, 괌(부산출발) : 247-5858	바름내과의원 소화기/간질환, 위/대장내시경, 초음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건강보험공단 지정검진기관 내과전문의 2명 문제현, 박기태(베드로) 지하철역 온천장역 1번 출구 150m SK허브올리브 3층 558-5608	협성주단·한복 결혼예복, 예단, 천연염색, 한복대여 강영숙(헬레나) 이용복(안드레아)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69~271호 (7호문 안쪽) 646-1123 010-3594-2137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2층 744-8181 상담 010-5616-8600	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 류마티스내과,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전문의 8명, 영상의학과 전문의 3명, 산부인과 검진 1명 박인호(루카), 서수홍(라파엘) 하단역 2번 출구 208-5566
법무법인 대한중앙 (사무실 확장·이전) 민·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정 민 (가브리엘) 714-3681, 010-9594-2360 부산법원 정문 맞은편 골목 안 와우빌딩 2층	준요양병원 재활중점/치매/노인성질환 병원장 최준식(안토니오) 상담, 문의 525-7711 부산 동래구 안락동 433-5번지(충렬대로 372)	눈시원안과 이현석(분도) 전. 곳모님 성모안과 공동원장 백내장, 노안교정, 라식/라섹, 드림렌즈 631-6622 범내골역 2번 출구 앞 제2향운병원 4층	덕천 길맥외과의원 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 원장, 박우일(요셉) 331-8888, 8899 덕천역 9번출구 앞 파리바게트 건물 6층	이콘 학교 <초급> <중급> 모집 4.5.6월 입학시 재료값 무료 혜택 010-2963-5672 민락성당 진귀은 엘리사벳

오순절평화희마을 후원회 미사

김해 : 4.4(월) 11:00 임호성당
 울산 : 4.5(화) 11:00 아음성당
 문의 : 782-0765

성령쇄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수요치유미사
 · 4.6(수) 13:00~15:00
 -금요일미사
 · 4.8(금) 20:30~22:30
 -100단 목주기도회
 · 4.11(월) 12:30~16:00
 -젊은이 기도회
 부산 : 4.11(월) 19:30 전포성당
 울산 : 4.6(수) 20:00 대리구 별관

ME부산협의회 382차 ME주말

· 4.22(금) 19:00~24(일) 17:30 / 대상 : 부부
 (결혼 3년 이상, 종교 무관), 성직자, 수도자
 문의 : 465-1010, 010-4130-4263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문의 : 462-0334(평일 14:00~17:00)

오륜대순교자성지 상설교회소 운영

· 주 2회(매주 월, 금) 14:00~15:30
 문의 : 515-0030

교육·모집·기타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장년 회원 모집

대상 :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45세 이하 신자
 문의 : 010-3572-0815

무아의 집 어르신 모집

대상 : 만 70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한신분
 1인실 2, 3, 4층 모집 / 문의 : 010-5955-6185

성모솔솔마을 효소 단식 피정

- 30차 효소단식피정
 · 4.8(금)~10(일) / 20만원
 - 31차 성주간 간헐적 단식피정
 · 4.10(일)~17(일) / 80만원, 인원 20명
 지도 : 문봉한 신부 / 문의 : 010-5613-0166

파스카 성삼일 전례피정

· 4.14(목)~17(일) / 피정비 : 3박4일 21만원
 '베네딕도 영성관'을 검색해주세요.
 문의 : 010-7103-3425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피정 : 4.30(토)~5.1(일)/6.11(토)~12(일)
 3박4일 피정 : 4.7(목)~10(일)/5.5(목)~8(일)
 8박9일 피정 : 4.20(수)~28(목)/5.11(수)~19(목)
 40일 피정 : 9.14(수)~10.23(일)
 ·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성골롬반외방선교회 ENTS(영어성경) on ZOOM

· 4.19~7.5 매주 화 19:00~20:30
 주제 : 루카 복음
 강사 : 안 페트릭 신부 / 수강료 : 5만원
 문의 : (02)953-0613, www.ents.or.kr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내용 :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접수 : 4.30(토)까지 우편접수가능
 문의 :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장애인의날 기념 <4,200원의 행복>

4,200원 모금을 통한 장애인 가정에 삼계탕 선물
 농협 301-0266-4873-71 로사리오 카리타스
 문의 : (052)248-5911(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술>국악성가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기준 : 성가대 및 합창단 유경험자
 지도사제 : 강수근 신부(국악성가연구소)
 문의 : 010-4932-5877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

· 4.10(일) 14:00~17:00
 ·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입구역 1번출구)
 대상 :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 010-3817-0567, columban.or.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 4.10~12, 4.19~21, 4.24~26, 4.30~5.2, 5.6~8, 5.10~12, 5.16~18, 5.22~24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침'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 (02)773-1455, (064)796-4182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 4.18~20, 4.29~5.1, 5.18~20
 성지순례 : 4.9~12, 4.23~26, 5.5~8, 5.28~31, 6.4~7, 6.12~15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부산교구 역사 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타

- 수집내용 : 1990년 이전 교구 관련 자료
- 수집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 수집장소 : 본당, 사무처, 부산교회사연구소
- 문의 : 519-0471(부산교회사연구소)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해외선교)	원하는 날 (미리 연락)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4.10(일) 12:00	봉래성당	010-3208-1973
가르멜수도회	매월	서울 가르멜 수도원	010-2140-7414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경영인재 양성
 ■ 전공 트랙제 운영 및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취업률 제고
 ■ 젊음만 가져오세요, 취업은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와 함께!
Come to CUP BIZ, Go Success!
 www.cup.ac.kr biz.cup.ac.kr

호흡기내과 김준형 과장 부임
 '천식, 기관지질환, 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메리놀병원 TV 이비인후과 정태영 과장
 "알레르기 비염, 이거만 기억하자!"
 유튜브로 확인해보세요.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대표전화 : 465-8801

혼인미사(결혼식) 특화성당
 토, 일, 공휴일 : 11, 13, 15, 17시
 051.441.3500 catholicwedding.kr
스드메 특전 제공(2020.11.~)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이벳파)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주름개선	다인요양원·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요양/주간보호/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 상담/신청대행 시설장, 옥 승 우(바오로) 723-6636, 010-6836-0613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길 376-28	일산자동차매상사 매매·교환·위탁·폐차·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대표 조남철(네레오) 010-3573-8797 현대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제네시스, 아반떼 등)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미래고속관광 5월 국내성지순례 1차: 5.14(토)~15(일), 2차: 5.21(토)~22(일) 1박 2일 의정부교구 성지 10곳(양주, 파주, 의정부) 우 중 한 (리차드) 010-3720-0303	라이프치과의원 전문과목 / 임플란트, 틀니 (65세이상 보철 임플란트, 틀니 환영) 치의학 박사, 최 재 훈(바오로) 치의학 박사, 박 찬 아(요한 금구) 743-3334 해운대 31번 종점 맞은편 8층 건물(2층)
동아대학교 음악치료전공 석사·박사 모집 21세기 유망직업 (음악치료사) 문의 : 담당교수 이지우(마리아) 010-2350-8075	이삿짐은 우리트렌스로 돌아가신 분 유품 처리해드립니다 대표 : 변성만(요한)·권명숙(로사리아) 582-1414 010-4042-8662	대신동 김스피부과 김형진(벨릭스)·황혜영(벨리나) 피부질환 및 피부미용 전문의 3인 진료 동대신동역 8번출구 246-9999	미카엘여행사 국내성지순례 모집 제주성지 순례 3일/4일 매주 화요일 출발, 매주 금요일 출발 한국성지167 완주 인천, 의정부 6/6, 서울 6/27, 대구 7/4 010-8650-9690	독일보청기 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사카드소지자(수급자무제한, 일반90%혜택)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 무 나(글라리아) *교우 특별 할인*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역 4, 6번출구(4층, 빨간색 건물)